

삼국시대 옥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관산성[古尸山城]*

성정용**

-
- I. 머리말
 - II. 4~5세기 옥천의 역사적 상황
 - III. 관산성 전쟁과 옥천
 - IV. 관산성 전쟁 이후의 추이와 옥천 지역의 역사적 의의
 - V. 맺음말
-

【국문초록】

관산성 전쟁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삼국시대의 국제전으로서, 이 전쟁이 발발한 기본적인 이유는 주지하듯이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 에 따른 반발에 있다. 그런데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역을 상실하 면서 극에 달한 백제의 분노가 표출된 첫 대상이 옥천이었음은 의미 심장하다. 아마도 백제는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논산 지역과 가까운 옥천부터 공략하여 자신들의 목덜미에 들이대어 있는 듯한 비수를 먼 저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산성 전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 무렵 에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전 초기 관산성을 빼앗고 구타모라새를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3)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축조할 정도로 전황이 백제에 유리하였다. 여창이 축조한 구타모라새는 심천이나 이원면 지역으로 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여창의 군대를 격려하기 위해 급히 길을 나섰던 성왕이 노상에서 전사하면서, 이 전쟁은 삼국의 향배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왕의 전사지점인 ‘구천’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여창의 본진이 관산성 일대로 몰려나 있던 까닭에 성왕이 옥천읍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사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고 싶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관산성 전쟁 후 불과 10여년만에 대가야가 멸망한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혹은 전쟁이 불러온 후폭풍일 가능성은 없을지 검토가 필요할 듯 하다. 한편 관산성 전쟁은 멀리는 660년 백제의 패망과 삼국의 존망을 가른 결정적인 전쟁이었으며, 옥천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었다. 삼국의 향배를 가른 관산성 전쟁, 비극적인 성왕의 죽음, 삼국 판 DMZ라 해도 좋을 만한 濟羅 국경선 등 옥천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역사적 서사를 갖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주제어 : 옥천, 백제, 신라, 가야, 왜, 관산성 전쟁, 국제전, 구타모라새, 삼국의 향배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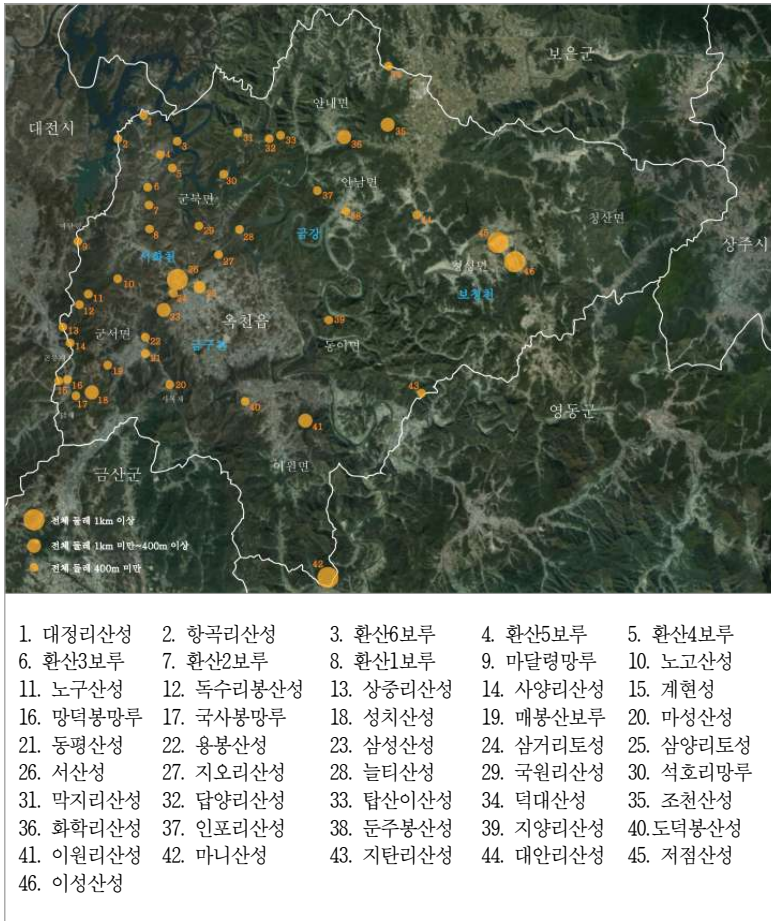
옥천은 가히 ‘산성의 나라’로 불리워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산성들이 옥천읍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도 모두 46개소에 달한다(도 1). 이 중 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청산면에 있는 이성산성뿐이어서 이들이 모두 삼국시대 축조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후술할 옥추(옥천-추부)회랑¹⁾을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기 어렵다.

옥천하면 의례 떠올려지는 것이 곧 관산성 전쟁²⁾으로서 옥천의 역사성 그 자체와 동일시되고 있기도 하다. 옥천 읍내의 북편에 위치한 서산성 또한 관산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산성 가운데 하나로, 둘레가 약 1,025m나 되어 옥천지역 산성 가운데 청산의 저점산성(1,500m)과 이성산성(1,140m), 이원의 마니산성(1,500m)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올해 실시된 서산성 정밀 지표조사 결과 문지 3곳과 망대지(3개소), 건물지(3개소), 치성(1개소), 집수시설(1개소) 등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토기도 수습되어(충북문화재연구원 2023), 이 산성이 신라와 관련될 가능성은 무척 높아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서산성의 자세한 실체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적인 발굴조사 등을 통해 차츰 밝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옥천 지역이 단순히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로서만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장소로서 그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작성하였다.

-
- 1) 옥추회랑은 필자가 만든 조어로서, 기본적으로 서화천유역에 해당된다.
 - 2) 이는 흔히 관산성전투로 불리우고 있는데(김병남 2010), 전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1)적을 섬멸하여 승리를 획득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 (2)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작전 행동의 한 수단 (3)전술적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통상 군단급 이하 제대의 협조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자국의 의사를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수행되는 조직적인 투쟁은 전쟁으로 불리우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최소한 백제에서 3만명 가까이 희생될 정도로 엄청나게 동원된 군사의 수나 가야와 왜까지 참전하는 국제전으로서의 성격과 기간 등을 감안하면 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 1] 옥천 지역 산성 분포도(김봉근 2023)

Ⅱ. 4~5세기 옥천의 역사적 상황

옥천 지역에 정치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였을까? 『三國史記』백제본기에서는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된 온조왕 26년(기원후 8)에 마한이 쇠약해지자 그 국읍을 병합하고 27년(기원후 9)에는 원산과

금현 2성이 항복하면서 마침내 마한을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다. 이와 달리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에서는 기원후 3세기 무렵에 마한이 의연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마한 54개국 가운데 옥천과 관련시킬만한 소국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고 옥천 지역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진변한과 가깝다고 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어쨌든 옥천 지역에도 3세기 무렵 일정한 규모의 정치체가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그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다.

한편 마한을 병합하면서 등장한 백제와 옥천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사실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도 전무하며, 일단 신라와 관련된 것부터 확인되고 있다(표 1). 옥천은 경덕왕 당시 管城郡과 그 領縣이었던 이산현·안정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동남쪽에 있는 청산지역이 신라 때 屈山縣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에 이르기까지 경덕왕이 개명한 管城郡의 옛 지명이 ‘古尸山郡’이었다고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A). 즉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관산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은 통일신라 때도 ‘관성군’으로 불리웠고, 그 이전에는 ‘古尸山郡’이었다는 것이다³⁾. 즉 옥천 지역은 삼국시대에 전통적으로 ‘古尸山’이라는 한자 발음과 가까운 명칭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굴산현은 486년에 삼년성과 굴산성을 고쳐 쌓았다 하므로(E-1), 굴산성이 곧 굴산현으로 편제된 것으로 이해된다. A~E의 기록에 보이는 옥천

3) 관산성이라는 명칭은 후술하는 것과 같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5년 조의 기록(J-3)이 유일한데, 古地名[古尸山]이나 공식적으로 개칭한 명칭[管城郡]과도 조금 다른 것이 진흥왕조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치 않은 것 같다. 혹 경덕왕이 개칭한 명칭이 관성군이므로,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지명과 ‘관성’이 혼합되면서 관산성이라는 명칭이 진흥왕대에 삽입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서는 函山城(가무무레노사시)으로 표기되어 있어(J-5) 관산성이 이 무렵 지명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 등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지명으로 보아 관산성이 6세기대 명칭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에 따라 관산성을 이 전쟁의 대표 명칭으로 불러야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어서 논문 제목에서도 ‘관산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지명 변천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A) 古尸山郡 ⇒ 管城郡(경덕왕) ⇒ 慶山府 管城縣(고려 현종) ⇒ 沃州(충선왕) ⇒ 沃川郡(조선 태종) : 옥천읍 일원
- B) 所利山縣 ⇒ 管城郡 利山縣(경덕왕) ⇒ 慶山府 利山縣(고려 명종) ⇒ 沃州(충선왕 폐현): 이원면 일원
- C) 阿冬号縣 ⇒ 管城郡 安貞縣(경덕왕) ⇒ 慶山府 安邑縣(고려) ⇒ 沃州(충선왕 폐현) : 안내·안남면 일원
- D) 屈(山)縣 ⇒ 三年郡 耆山縣(경덕왕) ⇒ 尙州牧 靑山縣(고려) ⇒ 黃靑縣(황간+청산, 조선 태종 14년) ⇒ 淸州牧 靑山縣(태종 16년) : 청산·청성면 일원

[표 1] 옥천 지역의 고대 지명 변천과 관련된 기록들

- A-1) 管城郡은 본래 古尸山郡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領縣이 둘이다. (『三國史記』 雜志 第3 地理1 新羅 管城郡)
- A-2) 管城縣은 본래 신라의 古尸山郡으로, 경덕왕 때 管城郡으로 고쳤으며, 顯宗 9년(1018)에 (경산부에) 속하게 하였다. (『高麗史』 志 卷第11 地理2 慶尙道 慶山府 管城縣)
- A-3) 본래 신라의 古尸山郡인데, 경덕왕이 管城郡으로 고쳤고, 고려 현종 9년(1018)에 京山府 임내에 붙어있다가, 인종 21년 계해에 비로소 縣令을 두었다. 충선왕 5년 계축에 知沃州事로 승격하고, 경산부의 임내인 利山·安邑·陽山 등 3縣을 갈라서 이에 붙였으며, 본조 태종 13년(1412) 계사에 例에 의하여 옥천군으로 고쳤다. 屬縣이 3이다.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沃川郡)
- B-1) 利山縣은 본래 所利山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따른다. (『三國史記』 雜志 第3 地理1 新羅 管城郡)
- B-2) 利山縣은 본래 신라의 소리산현으로,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管城郡의 領縣이 되었다. 현종 9년(1018)에 (경산부에) 來屬하였으며, 명종 6년(1176)에 監務를 두었다. (『高麗史』 志 卷第11 地理2 慶尙道 慶山府 利山縣)
- C-1) 安貞縣은 본래 阿冬号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安邑縣

이다. 『三國史記』雜志 第3 地理1 新羅 管城郡)

C-2) 安邑縣은 본래 신라의 阿冬兮縣으로, 경덕왕 때 이름을 安貞으로 고치고, 管城郡의 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었으며, 顯宗 9년(1018)에 (경산부에) 속하게 하였다. 『高麗史』志 卷第11 地理2 慶尙道 慶山府 安邑縣)

D-1) 耆山縣은 본래 屈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의 靑山縣이다. 『三國史記』雜志 第3 地理1 新羅 三年郡]

D-2) 靑山縣은 본래 신라의 屈山縣[堧山이라고도 한다.]으로, 경덕왕 때 이름을 耆山으로 고치고, 三年郡의 領縣이 되었다. 고려 초에 지금 이름으로 바꾸고 (상주목에) 來屬하였다. 공양왕 2년(1390)에 監務를 두고, 상주의 酒城部曲을 떼어 소속시켰으며, 11년(1399)에 도로 상주로 소속을 바꾸었다. 『高麗史』志 卷第11 地理2 慶尙道 尙州牧 靑山縣)

D-3) 본래 신라 屈山縣인데, 景德王이 耆山縣으로 고쳐 三年郡의 領縣으로 붙였고, 고려가 靑山으로 고쳐서 尙州 任內에 붙였는데, 공양왕 2년 경오에 비로소 監務를 두고 尙州에 딸린 酒城部曲을 떼어 이에 예속시켰다가, 기묘에 다시 상주에 붙이었다. 本朝 太宗 3년 계미에 다시 監務를 두고, 14년 갑오에 黃澗에 합쳐서 黃靑縣이라 하다가, 16년 병신에 다시 靑山 縣監으로 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淸州牧 靑山縣)

E-1) 炤知麻立干 8년(486) 봄 정월에 伊滄 實竹을 장군에 임명하였으며, 一善界 장정[丁夫] 3,000명을 징발해 三年城과 屈山城 두 성을 고쳐 쌓았다 (八年 春正月 拜伊滄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三國史記』新羅本紀]

이처럼 옥천 지역에서 신라 지명만 확인되는 것과 달리 금산 지역은 백제로 편제된 기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F·G). 금산을 일원은 백제의 進乃乙郡이고, 진산은 黃等也山郡 소속 珍同縣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명은 대개 사비기 또는 일러도 웅진기 무렵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들 지명은 옥천과 금산의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지역의 지명 변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F) 進乃乙郡(백제) → 進禮郡(경덕왕) → 進禮縣(고려) → 錦州(충렬왕)

→ 錦山郡(조선 태종) : 현 錦山邑 및 주변

G) 黃等也山郡 珍同縣(백제) → 黃山郡 영현(경덕왕) → 進禮縣 속현
(고려) → 高山縣 편입(공양왕) → 珍州(조선 태조) → 珍山郡(태종)
: 현 금산군 진산면 일원

[표 2] 고대 금산 지역의 지명 변천과 관련된 기록들

F-1) 進禮郡은 본래 백제의 進仍乙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까지 그대로 따른다. 거느리는 현은 3개이다. 『三國史記』 雜志 第5 地理3 新羅 進禮郡)

F-2) 본래 백제 進乃乙郡이었는데 신라에서 進禮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縣승으로 강등하였다가, 충렬왕 31년(1266) 을사에 고을 사람 金旆이 원나라에 벼슬하여 遼陽行省參政이 되어 本國에 공이 있었으므로 知錦州郡事로 승격하였다. 본조 태종 13년(1412) 계사에 例에 의하여 금산군으로 고쳤다.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珍山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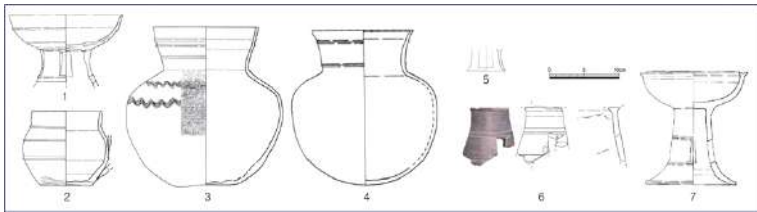
G-1) 珍同縣은 본래 백제의 현이었는데, 경덕왕이 州郡의 이름을 고쳤으며, 지금도 그대로 쓴다. 『三國史記』 雜志 第5 地理3 新羅 黃山郡)

G-2) 본래 백제 珍同縣이었는데 신라에서 黃山郡의 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에서 進禮縣의 任內로 하였다가, 공양왕 2년(1390) 경오에 高山 監務로 겸임하게 하였다. 본조 태조 2년(1393) 계유에 태조의 胎室을 봉안하였으므로 知珍州事로 승격하였으며, 태종 13년(1412) 계사에 例에 의하여 진산군으로 고쳤다.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珍山郡)

그렇다면 옥천은 신라 이전에 백제와는 관계가 없었던 것일까? 연질 단경호와 킵형토기·무경역자식 철촉 등이 출토된 옥천 가풍리 토광묘(中原文化財研究院, 2011b)와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부지에서 조사된 주거지 등(충북문화재연구원, 2020)은 4세기 무렵 이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한성백제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금산 수당리에서 5세기대의 백제 고분과 관련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고(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보은 상가리(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에서도 5세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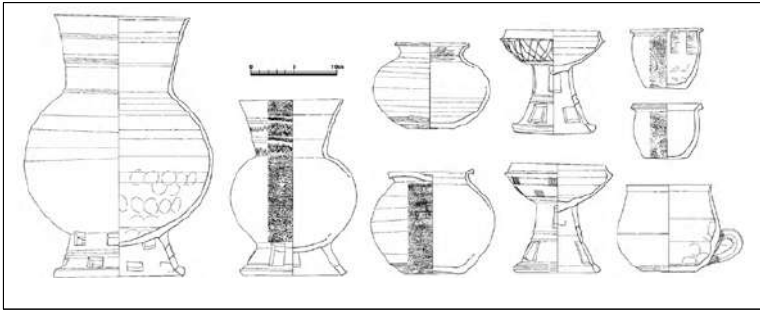
의 백제 흑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토광묘가 조사된 점을 고려하면 옥천 지역도 이 무렵 한성백제와 깊은 관련을 맺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굴산성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옥천 이성산성 성벽에서 4세기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신라토기 고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도 2-6,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이 고배는 대각 2단부에 투창이 있는 것으로서 경주 월성로 가-6호분 출토품과 비견된다(윤상덕 2022). 이성산성과의 축조시기와도 차이가 많은 만큼 신라의 직접 진출보다는 청산지역의 재지 정치체와 신라사이의 교류에 의한 이입일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도 2] 금강유역 일원의 신라진출이전 초기 신라토기(1.진천 석장리 B구, 2.3.괴산 검승리 4호 석곽묘, 4.대전 구성동 D-1호 토광묘, 5.청주 송절동 29호 수혈, 6.옥천 이성산성 성벽 축조토, 7.경주 월성로 가-6호묘 (윤상덕, 2022, 그림1)

한편 옥천 금구리 고분군(中原文化財研究院, 2011a)은 신라의 옥천 지역 진출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출토 고배와 장경호(도 3)는 남익희(2018)의 신라 경주고분 편년 ‘X기’ 전후에 해당되는 기형으로서, 대략 5세기 말로 편년하고 있다. 보은-청산 지역에 이어 옥천 지역에 일찍부터 신라가 진출하였던 것이다.



[도 3] 옥천 금구리 4호분 출토 토기

Ⅲ. 관산성 전쟁과 옥천

1. 관산성 전쟁의 전야

관산성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은 『日本書紀』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551년에 백제가 신라와 함께 한성과 평양을 공격하여 6郡의 故地를 수복하였다가, 552년에 백제가 한성을 포기하고 신라가 한성을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H-1·2). 이와 달리 『三國史記』에서는 553년 7월에 신라가 백제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 1년의 차이가 나고 있다⁴⁾. 그런데 불과 3달 후인 553년 10월에 성왕의 딸을 신라로 보내 혼인 동맹을 맺고 있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제의 한강 상실이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에 따른 결과로 보는 시각이 강한 만큼, 어려움에 처한 백제의 고육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552년 5월에 가야·안라 등과 함께 덕솔 木笏今敦 등을 보내 원병을 요청하는 한편(I-1), 10월에는 그 대가성의 성격을 지

4) 대개 내용은 한성 등의 지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日本書紀』를, 연도는 『三國史記』를 취신하고 있다.

닌 불법을 전하고 있으며(I-2), 이어 553년 봄에도 德率 科野次酒를 보내 원병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백제는 왜에 꾸준히 원병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54년 1월과 2월에도 잇달아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하고 있다(I-4·5). 이전의 원병 요청이 관산성 전쟁과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554년의 원병 요청은 그 해 발발할 관산성 전쟁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파병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정재운, 2019).

[표 4] 관산성 전쟁 발발 직전의 관련 기록들

- H-1) 欽明 12년(551) 백제 聖明王이 백제군과 두 나라(신라·가야)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고구려)를 정벌하여 漢城을 먼저 차지한 다음, 이어서 평양을 공략하고 무릇 6郡의 故地를 收復하였다. (『日本書紀』)
- H-2) 欽明 13년(552)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신라가 한성으로 들어갔다. 지금 신라의 牛頭方과 尼彌方이다.(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地名未詳]) (『日本書紀』)
- H-3) 聖王 31년(553)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였다. (『三國史記』 백제본기)
- H-4) 眞興王 14년(553) 가을 7월에 백제 동북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고 阿飡 武力을 軍主로 삼았다. [『三國史記』신라본기]
- H-5) 聖王 31년(553) 겨울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갔다.[『三國史記』백제본기]
-
- I-1) 欽明 13년(552) 5월 무진삭 을해(8일)에 백제, 가야, 안라가 中部 덕솔 木笏今敦과 河內部 阿斯比多 등을 보내어 “고구려와 신라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삼가 원병을 요청하여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군사의 많고 적은 천황의 칙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 I-2) 欽明 13년(552) 겨울 10월에 백제 聖明王이 西部 姬氏 達率 怒喇斯致契 등을 보내어 釋迦佛金銅像 1軀, 약간의 幡蓋 약간의 經論을 바쳤다.
- I-3) 欽明 14년(553) 봄 정월 갑자삭 을해에 백제가 上部 德率 科野次酒와 杆率 禮塞敦 등을 보내 군병을 청하였다. 무인에 백제의 사신 杆率 木笏今敦과 河內部 阿斯比多 등이 돌아갔다.
- I-4) 欽明 15년(554) 병신(1월 9일)에 백제가 중부 木笏 施德 文次와 전부 施

德 曰佐分屋 등을 筑紫에 보내 內臣과 佐伯連(사에키노무라지) 등에게 “덕술 차주와 간술 색돈 등이 지난해 윤달 4월에 와서 ‘臣 등[신 등은 내신을 말한다.]은 내년 정월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였지만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는 것이니까, 아닙니까. 또한 군대의 수는 얼마입니까. 대강이나마 듣고 미리 군영의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별도로 “이제 듣자니 황궁하신 천황의 조서를 받들어 축자에 가서 보내 줄 군대를 환송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올해의 싸움은 전에 없이 매우 위태로우니 보내주시길 군사를 정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신이 명령을 받들어 “**바로 구원군 1천, 말 1백 필, 배 40척을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I-5) 欽明 15년(554)2월에 백제가 하부 杆率 將軍 三貴와 상부 奈率 物部烏 등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덕술 東城子莫古를 바치면서 이전의番禺 나술 東城子言과 교대시키고, 오경박사 王柳貴를 固德 馬丁安과 교대하도록 하였다. 승려 曇慧 등 9인은 승려 道深 등 7인과 교대시켰다...

I-6) 欽明 15년(554) 3월 정해삭(1일)에 백제의 사신 중부 木笏 施德 文次 등이 돌아갔다.(『日本書紀』)

2. 관산성 전쟁의 전개과정과 그 위치

1) 옥천의 지정학적 가치와 관산성 전쟁

백제가 관산성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 무엇보다 한강유역 상실에 따른 보복전이라는데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백제가 그 보복전으로 왜 하필 옥천지역을 선택하여 3만명에 가까운 대군을 동원하는 그 큰 전쟁을 무리하게(耆老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으켰던 것일까? 大耶城처럼 아예 소백 산맥 너머 신라의 본령을 공격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배가되었을 터인데 말이다. 이는 옥천의 지정학적 위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보은 삼년산성의 축조가 470년으로서 이는 토기상에서도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무엇보다 그 축조시

기가 한성 도읍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성기 말은 백제와 고구려와의 대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여서,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백제가 무언의 용인을 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해된다.

한편 486년에 신라가 삼년과 굴산 2城을 개축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면, 굴산성도 삼년산성과 비슷한 시기에 이미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청산지역이 보은과 불과 30여km도 떨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후에 관성군이 아닌 삼년산군에 편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으로(생활권역 또한) 청산과 보은은 거의 하나처럼 움직이는 권역이라 할 수 있다.

옥천과 청산은 보정천을 통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지역은 非통혼권이랄만큼 지리적으로 격절되어 있다. 청산에서 옥천으로 직접 가기 위해서는 청성면 산마리 고개를 넘어 舊 경부고속도를 따라가야 하지만 이는 일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청산에서는 삼남리나 용산을 거쳐 심천-이원으로 나간 다음, 이원에서 북쪽으로 옥천 읍내로 가거나 혹은 남쪽으로는 양산을 거쳐 금강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금산 읍내로 진출할 수 있다.

금구리 신라고분은 청산으로 진출한 신라가 5세기 후엽~말 무렵 옥천읍 일대로 진출한 상황을 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이 어간에 웅진 천도(475년)가 이루어진다. 이제 옥천은 한성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옥천과 인접한 금산이 한성기에 백제의 대가야 통로로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보은도 화령을 통해 영남지역과 연결되는 교두보였지만 이 지역들의 향배가 백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웅진·사비기의 옥천과 금산 지역은 너무나도 다른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백제의 천도에 따라 최고 핵심부[도성]와 인접하는 위치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것이다.

사실 웅진 천도 이후 동성왕대까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하면 백제가 신라의 옥천 진출을 막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옥천에서 대전을 거쳐 공주까지 가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즉 웅진기에 신라의 옥천

점유는 백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백제의 절체절명 위기와 직결된다고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538년에 사비[부여]로 천도 하게 되면서 옥천지역의 지정학적 가치가 신라와 백제 사이에 훨씬 중요하게 대두된 것 같다.

황산벌전투가 있던 논산과 부여는 개활지로 연결되어 걸어서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이며, 부여의 앞 마당과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데 옥천에서는 군북면 증악리나 혹은 군서면 사정리를 넘어 남대전을 거쳐 구봉산 북쪽 자락을 돌아 계룡을 넘어가면 바로 연산 지역에 다다를 수 있다. 또한 군서에서 서쪽으로 추부와 진산을 지나 웅치를 넘으면 바로 양촌면 산직리가 나오고 그 북쪽이 황산벌로 비정되고 있는 연산 지역에 해당된다. 한편 옥천 읍내에서 서쪽으로 마성산을 넘어 옥천 군서면-추부(약 10km)를 지나고 추부-진산(약 11km)을 거쳐, 진산에서 벌곡면 검천리를 지나 웅치고개(백제토기가 출토되는 웅치산성이 있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를 넘으면 바로 양촌면 산직리(산직리 산성)에 이르게 되고(약 14km), 산직리에서 북쪽으로 낮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역시 바로 연산 지역이 나온다(약 2~3km). 한편 마지막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추부에서 금산(약 10km)을 거쳐(전술한대로 이원에서 양산을 지나 직접 금산으로 올 수도 있다), 금산 남이면 석동리-흑암리-역평리 육백고지(백제 백령산성이 있음)를 지나(약 20km), 대둔산 남쪽을 돌아 운주 삼거리를 거쳐 북쪽으로 가면 양촌 모촌리에 이어 연산지역에 다다르게 되는데(약 30km), 이 길은 거리도 멀지만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해 그리 만만치는 않다⁵⁾.

어쨌든 사비 천도 이후 사비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논산 지역과 신라의 수중에 있던 옥천 지역이 너무나도 가까워져 버린 것이다. 즉 신라의 옥천 점령은 백제로서는 항상 서늘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

5) 옥천에서 연산으로 향할 수 있는 이 세 갈래 길들이 곧 羅濟 전쟁의 명운을 좌 炭峴과 관련된다.

황으로 급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신라가 웅진기부터 점유하고 있고, 고구려와의 대립 속에 신라와 결혼동맹을 비롯한 화친책을 써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옥천을 공략할 엄두를 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을 계기로 신라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자, 백제의목덜미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인 옥천 일대부터 탈환하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관산성 大戰 발발의 숨은 원인이 아닐까?

2) 관산성 전쟁의 재구성

백제가 원하던 왜의 원병이 드디어 554년 5월 파견되면서 관산성 大戰의 서막이 울리게 되었는데(J-1), 사실 그 규모가 병사 1천에 말 백 필, 배 40척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다(1-4). 이 기록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이 기록이 사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는 백제가 원하던 규모가 아니었을 듯하다. 어쨌든 왜의 원병이 6월에 도착하자(J-5)⁶⁾ 백제는 마침내 가야군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으나(J-3), 7월에 성왕이 狗川에서 죽으면서 전쟁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J-2). 그런데 『日本書紀』에는 『三國史記』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전쟁의 추이를 전하고 있다(J-5). 백제가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12월에도 왜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후 555년 2월에 여창의 동생 왕자 惠가 성왕의 죽음을 왜에 알리고 있다(J-6). 554년 12월 원병을 청한데 이어 바로 등장하는 성왕의 죽음이 아마도 원병을 청하는 사신의 도착과 비슷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된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관산성 전쟁은 554년 7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정재운 2019). 554년 10월 고구려의 웅천성 공격(J-4)은 우연이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협력에 따른 것으로(방용철 2019), 백제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백제가

6) 왜 원병의 이동경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구체적 정보는 없다. 다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수군이므로 부여까지 와서 합류하였을 가능성이 다시 높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왜에 다시금 원병을 청하게 만들었던 것(J-5)으로 보인다. 긴박했던 554년의 일들을 시간에 따라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표 5·6).

[표 5] 554년 관산성 전쟁과 관련된 기록들

- J-1) 欽明 15년(554) 여름 5월 ‘왜의 백제 원병 파견(관산성 전쟁 참전)’
여름 5월 丙戌朔 戊子(3일)에 內臣이 水軍을 거느리고 백제로 갔다.〔『日本書紀』〕
- J-2) 聖王 32년(554) 가을 7월 ‘성왕의 전장 방문과 狗川에서의 죽음’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어 돌아가셨다. 시호를 聖이라 하였다.〔『三國史記』 백제본기〕
- J-3) 眞興王 15년(554) ‘백제와 가야 연합군의 관산성 공격과 격퇴’
백제왕 明穰이 加良와 함께 와서 管山城을 공격하였다. 軍主 角干 于德과 伊演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新州 軍主 金武力이 州兵을 이끌고 나아가 서로 맞붙어 싸웠는데, 裨將인 三年山郡의 高干 都刀가 갑자기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여러 군대들이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佐平 4명과 士卒 29,600명의 목을 베었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三國史記』 신라본기〕
- J-4) 陽原王 10년(554) 겨울 ‘고구려의 백제 공격’
겨울에 백제 熊川城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다.〔『三國史記』 고구려본기〕
- J-5) 欽明 15년(554) 겨울 12월 ‘백제의 추가 구원병 요청과 성왕의 죽음, 餘昌의 퇴각’
겨울 12월에 백제가 하부 杆率 汶斯干奴를 보내 표를 올려 “...신들이 함께 의논하여 有至臣 등을 보내 군사를 요청하여 신라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황이 보낸 유지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6월에 도착하였습니다. 신들이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12월 9일에 신라를 공격하도록 보냈습니다. 신이 먼저 東方領 物部莫哥武連(모모노베노마카무라지야)을 보내 그 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函山城(가무무레노사시)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지신이 거느리고 온 竹斯物部莫奇委沙(츠쿠시노모노노베노마카와사카)는 불화살을 잘 쏘았습니다. 천황의 威靈으로 이 달 9일 酉時에 성을 빼앗아 불태워버렸습니다. 단출한 사신을 배로 급히 파견하여 아웁니다.”라고 말하였다. 별도로 “만약 신라 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狛과 신라가 함께 힘을 합하였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竹斯島(츠쿠시노시마) 근처에 있는

여러 군사들을 보내 신의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엿드려 청합니다. 또한 임나를 도울 수 있다면 일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상하였다. 그리고 “신이 따로 군사 만 명을 보내 임나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뢰니다. 이번 일은 정말 급해서 한 척의 배를 보내 아뢰는 것입니다. 좋은 비단[錦] 2필, 탐등(鼈鼈) 1령, 도끼 3백 구, 사로잡은 성의 백성 남자 2명과 여자 5명을 바칩니다. 변변치 않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라고 주상하였다.

여창이 신라를 정벌할 것을 모의하니 耆老가 “하늘이 아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언하였다. 여창이 “늙었구려, 무엇을 겁내는가. 우리는 大國을 섬기고 있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塞를 쌓았다.** 그 아버지 明王은 여창이 계속된 전쟁에 오랫동안 쉬지도 먹지도 못 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도 펼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도 효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몸소 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명왕이 친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징발하여 길을 차단하고 격파하였다. 또한 이때 신라에서는 佐知村의 飼馬奴 苦都[다른 이름은 谷智이다.]에게 이르기를 “고도는 천한 놈이다. 명왕은 유명한 군주이다. 이제 비천한 노비에게 유명한 군주를 죽이게 하자.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명왕은 “왕의 머리를 노비의 손에 건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고도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맹약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습니다.”라고 말하였다[어떤 책에는 “명왕이 胡床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谷智에게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주며 베도록 하였다.”고 한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늘 고통이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돌이켜 헤아려 보아도 구차하게 살 수는 없다.”고 하면서 머리를 내밀어 베도록 하였다. 고도는 목을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어떤 책에는 “신라는 명왕의 두골을 남겨 매장하고 나머지 뼈는 예를 갖추 백제에 보냈다. 지금 신라왕이 명왕의 뼈를 北廳 계단아래에 묻었다. 이름하여 그 관청을 都堂이라 한다.”고 한다.]. 여창은 마침내 포위당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졸들은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때 筑紫國造(츠쿠시노쿠니노미야츠코)라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활시위를 당겨 신라의 기병 중 가장 용감한 자를 쏘아 떨어뜨렸다. 쏜 화살은 예리하여 말안장 앞의 前輪과 後輪을 관통하여 갑옷의 옷깃까지 다다랐다. 계속해서 쏜 화살은 비 오듯이 줄기차게 이어져 포위한 군대를 퇴각시켰다. 여창과 여러 장수들은

셋길로 도망하여 돌아갈 수 있었다. 여창은 국조가 활로 포위한 군대를 물리친 것을 칭찬하며 鞍橋君(쿠라지노키미)이라 높여 불렀다. 이때 신라 장수들은 백제가 피로하고 지쳤음을 알고 드디어 전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자 한 장수가 “안 된다. 일본 천황이 임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우리 나라를 책망하였다. 하물며 다시 백제 관가를 멸망시킨다면 반드시 후환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만 중지하였다. (『日本書紀』)

J-6) 欽明 16년(555) 2월 ‘백제가 왕자 혜를 보내 성명왕의 죽음을 알리다’

봄 2월에 백제 왕자 여창이 왕자 惠[왕자 혜는 위덕왕의 동생이다.]를 보내어 “聖明王이 적에게 살해당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천황이 듣고서 상심하고 슬퍼하였다. 곧 사자를 보내어 나루에서 맞이하고 위문하였다. 이때 許勢臣(코세노오미)이 왕자 혜에게 “이곳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혜가 “천황의 덕에 의지하여 돌아가신 부왕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만약 불쌍히 여겨 병기를 많이 주신다면 치욕을 씻고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신이 돌아갈지 머무르는지 오직 명에 따를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日本書紀』)

[표 6] 554년 관산성 전쟁의 재구성

- ① 1월 왜에 施德 文次 등을 보내 원병 청하고, 2월에 杆率 將軍 三貴 등 보내 다시 원병 요청 →
- ② 3월 文次 귀국 →
- ③ 5월 왜 원병 출발하여, 6월에 왜군 합류(가야군도 합류?) →
- ④ 7월(?) 관산성(函山城?) 공격과 久陀牟羅塞 축조 →
- ⑤ 新州 軍主 金武力의 참전과 10월 고구려의 웅천성 공격 →
- ⑥ 12월 杆率 汶斯干奴를 왜에 보내 추가로 원병 요청 →
- ⑦ 狗川에서 성왕 죽음

3) 久陀牟羅塞와 狗川

여창이 관산성[古尸山]을 공격하고 만들었다는 久陀牟羅塞(J-5)는 어디일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塞를 쌓았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산성보다는 목책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병영의 성격일 가능성이 상정될 수 있다. 당시 동원된 3만 대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산 위보다는 넓은 평지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일대에서 관산성과 가까우며 그만한 정도의 평지가 있는 곳은 추부나 금산읍, 옥천읍, 이원, 심천 정도밖에 없다. 백제의 공격 목표나 성왕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한다면 추부나 금산읍은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너른 옥천읍 일대가 유력해 보일 수 있다. 다만 옥천읍 주변에 관산성이 있었다면, 굳이 바로 옆에 塞를 축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구타모라라는 또 다른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 古尸山과는 다른 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창이 開戰 초기에 관산성을 빼앗고 신라를 압박하려 하였다면 당시 관산성보다는 신라의 후방에 해당하는 굴산(청산 일대)이나 삼년산군(보은)에 가까운 지역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지역에 가까우면서 대규모 둔대가 주둔하기 위해 塞를 축조할 수 있는 곳은 이원이나 심천 지역 정도 밖에 없을 듯 하다⁷⁾.

한편 성왕이 이동한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구타모라새와 관산성의 위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성왕이 부여에서 옥천으로 향하는 최단 경로인 연산-웅치-진산로를 이용하여 옥천 읍내로 가고자 하였다면, 추부에서 군서면 금산리를 지나 마성산의 사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편 기존에 그리 주목되지 않았으나, 연산에서 계룡-서대전-산내를 거쳐 백제산성으로 알려진 계현성과 성치산성(조순홍, 2021)이 있는 닭재를 지나면 바로 군서면에 다다를 수도 있다.

구타모라새가 추부나 금산 지역이라면 성왕의 전사지로 유력시되는 군서면 월전리까지 성왕이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군서면에서 서화천의 좁은 협곡을 따라 4km쯤 가면 군서면 월전리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후술할 서산성과 삼양리토성·삼거리토성 등 관산성군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불과 2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성왕의 목적지는 여창이 만든 구타모라새이거나 혹은 개전 초기 점령한 관산성일 수 있는데, 다만 구천이 만약 월전리라면 성왕의 목적지는

7) 이에 대해 박종욱(2023)은 심천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한 바 있다.

옥천 읍내보다는 서산성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⁸⁾. 여창이 계속된 전쟁에 오랫동안 쉬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고생하는 것을 성왕이 걱정하며 격려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고 하는 것(J-5)을 보면, 개전 초기와는 달리 전세가 백제에 그리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전 초기 구타모라새를 중심으로 공방을 주고받다 관산성 일대로 백제가 후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성왕의 전사지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천이 어디이던간에 성왕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백제 본영과 가까운 곳에서 전사한 셈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풀기 어려운 것은 과연 12월 경에 신라가 본거지로 한 곳은 어디이며, 최소 수백명 이상의 군사⁹⁾가 백제의 감시를 피해 어떻게 狗川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3. 管山城인가, 古尸山(古利山)城인가?

관산성은 그 자체로 너무 유명하다. 이는 성왕 당시의 지명으로서, 관산성이 관성군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한다(정재윤, 2019). 그런데 관산성이 나오는 것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흥왕 15년 신라측 기록이 유일하며(J-3), 관성군은 경덕왕이 고시산군을 개명한 것이다(A-1). 그렇다면 관산성 전쟁 당시의 지명이 정말 관산성이었던 것일까?

古地名[古尸山]이나 공식적으로 개칭한 명칭[管城郡]과도 조금 다른 것이 진흥왕조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치 않은 것 같다. 혹 경덕왕이

8) 사실 군북면 이백리도 구천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 그 목적지는 서산성과 삼양리토성쪽 일원으로서, 상호 거리가 3km 정도에 불과하다.

9) 성왕을 호위하는 50명의 군사는 최정예병들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쉽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개칭한 명칭이 관성군이므로,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지명과 ‘관성’이 혼합되면서 관산성이라는 명칭이 진흥왕대에 삽입된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일본서기』에는 函山城(가무무레노사시)으로도 표기되어 있어(J-5) 관산성이 이 무렵 지명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삼국사기』등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는 지명으로 본다면 관산성은 6세기대 명칭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된다.

신라의 郡制가 대략 6세기 중엽 무렵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면(주보돈, 1998), 신라가 이 지역을 군으로 편제한 것도 이 무렵 이후였을 것이며 그 지명은 古尸山郡이었다. 그런데 삼국을 평정하고 공적을 논하는 자리에서 문무왕이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角干 金武力이 공을 세운 곳으로 古利山을 거명하고 있다(k-1). 古尸山の尸는 ‘ㄹ’받침으로서 고시산을 ‘골산’이라고 읽을 수 있고, 古利山 역시 ‘골산’으로 독음할 수 있어, 고시산과 고리산은 동일 지명에 대한 다른 표기로 이해하기도 한다(전덕재, 2009). 결국 금구리고분으로 보아 신라가 5세기 후엽 무렵 진출하였을 당시 옥천 지역의 지명은 ‘골산(古尸山, 古利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무렵 삼년산성과 같은 城 단위 편제를 고려하면 古尸山城(古利山城)으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삼년산성이 삼년산군으로 바뀌었듯이 古尸山城도 古尸山郡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산성전쟁이 아니라 ‘골산성(古尸山城, 古利山城)’ 전쟁이라 해야 하는 것 아닐까?

다만 고시산을 管山으로 바꾸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고시산과 관산이 일정한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덕왕 때 개명한 지명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진흥왕조에 삽입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¹⁰⁾.

10)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 박성현교수로부터 여러 도움 말씀을 받았다.

[표 7] 옥천의古지명 관련 기록

K-1) 文武大王께서 英公과 함께 평양을 함락시키고 南漢州로 돌아와 여러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백제 明穰王이 古利山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는데, 유신의 할아버지 武力 角干이 장군이 되어 역공을 펼쳐 승세를 타고 그 왕 및 宰相 4인과 병사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적을 물러나게 하였다. 또 그의 아버지 舒玄은 良州 總管이 되어 여러 차례 백제와 싸워 그 예봉을 꺾어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만약 庾信公 집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직위와 상은 마땅히 어떠하여야 하겠는가?” 『三國史記』列傳 金庾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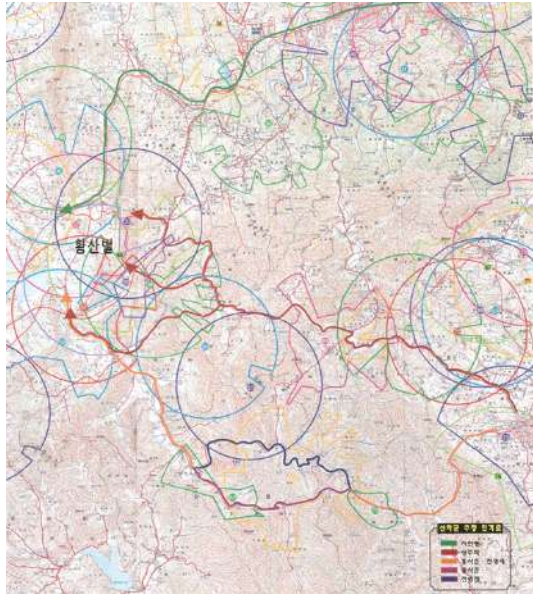
이러한 관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환산설(양기석, 2009, 21쪽), 삼성산성설(문안식, 2006, 358쪽), 환산 보루와 삼성산성을 아우르는 보루들의 총칭으로 이해하는 설(김병남, 2010)과 함께 삼양리토성을 중심으로 한 삼성산성과 서산성 일대(정재윤, 2019, 27쪽)에 삼거리토성을 추가하는 견해(이주우, 2021, 103쪽) 등이 있다. 보은 삼년산성이나 옥천 이성산성, 문경 고모산성 등이 무렵 신라 성곽들의 위치를 고려하면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한 환산은 지방 지배와 관련된 거소로서는 조금 부적합해 보인다. 그렇다면 6세기 무렵 신라 변경의 지방 지배 방식과 함께 옥천 지역 산성들의 배치와 입지·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관산성(古尸山城)은 서산성을 중심으로 삼양리토성과 삼거리토성 등이 일종의 군을 이룬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필자도 생각하고 있다.

Ⅳ. 관산성 전쟁 이후의 추이와 옥천 지역의 역사적 의의

1. 관산성 전쟁 이후의 추이

관산성 전쟁 이후 곧 대가야까지 562년에 멸망하여 가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보면, 관산성 전쟁의 후폭풍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도 관산성 전쟁 이후 백제의 목덜미에 비수를 들이댄 형국인 옥천 일대의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660년 신라의 백제 정벌에 너무나도 큰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5세기 후반 이후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에 대해 조순흙(2021)은 산성과 고분 유적 분포 양상을 토대로 3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 첫 번째는 5세기 후반부터 554년 관산성 전쟁까지 시기로서, 백제와 신라가 서화천을 경계로 식장산 줄기와 마성산 줄기에 각각 성보를 구축하고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는 554년 전쟁의 대승을 기반으로 대전 동부지역의 계족산 줄기와 금산지역까지 신라가 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세기 전반 이후 백제가 다시 동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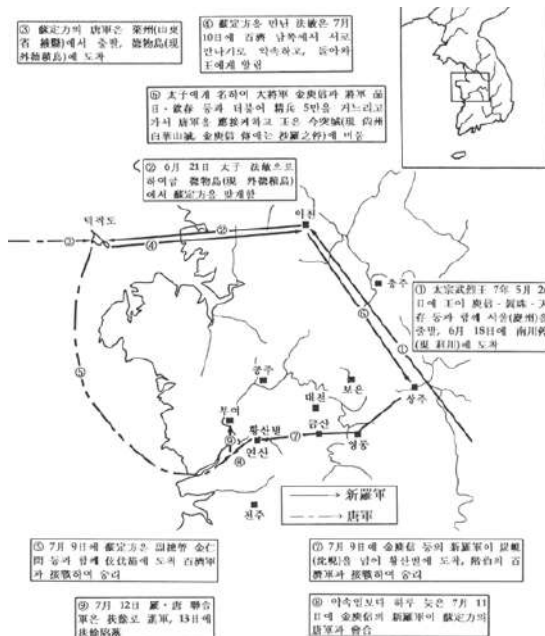


[도 4] 김유신군의 예상 진격로와 탄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하면서 이원면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금산 장대리고분군의 2호분·6호분 등 이른 시기 토기들이 윤상덕의 신라 중기양식 Ia 단계 토기상과 유사하여(윤상덕, 2014, 107쪽), 장대리고분군이 관산성전쟁 이전부터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5세기 후엽 옥천지역에 진출한 신라가 한 걸음 더 백제 영역으로 들어왔던 셈이다. 이후 관산성 전쟁의 시작과 함께 백제가 탈환하였다가 성왕의 사망과 함께 다시 신라의 수중에 들어갔을 수 있다. 다만 장대리고분군의 조영 시기 폭이 그다지 넓지 않음을 고려하면(윤상덕 편년의 중기양식 Ib~IIa단계, 6세기 후엽 경), 추부 일대가 신라 영역으로 편재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화천유역을 중심으로 한 ‘옥추(옥천-추부)회랑’과 추부에서 남쪽으로 금산을 있는 지역은 5세기 후엽 이후 백제 멸망시까지 그 부침



[도 5] 羅唐 연합군의 군사 이동 상황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나제 국경선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서 삼국시대의 DMZ 같은 지역으로 이해된다. 이는 장대리고분군의 조영시기와 함께, 서화천 양편에 산성들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진산과 금산 지역은 사비기 백제의 군현지역으로서, 백제 영역에 편재되어 있었던 점도 중요하다.

한편 백제의 명운을 가른 ‘炭岬’의 위치에 대해서는 옥천 탄현설(군북면 자모실고개, 이병도, 1959 ; 지현영, 1970), 진산 탄현설(성주탁, 1990), 운주 탄현설(홍사준, 1967 ; 전영래, 1982) 등이 거론되고 있다(도 4·5). 황산벌 전투의 여파로 김유신과 소정방군이 합류하기로 한 날보다 하루 늦어 두 진영 사이에 커다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김유신군의 진군 속도는 대단히 중요하였다. 옥추회랑을 둘러싼 산성군들의 배치와 세 루트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탄현의 위치는 그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¹⁾.

2. 옥천, 삼국의 향방을 가른 역사적 장소

전술한 것과 같이 신라가 옥천 지역에 진출한 시점은 현재 고고학적 자료로 보아 대개 웅진 천도를 전후한 시기로 볼 수 있다. 475년 한강유역의 상실과 함께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던 백제로서는 웅진 천도 초기에 신라의 진출을 불가피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인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濟羅 동맹이 보다 중요하였던 탓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각자 도생이 중요한 삼국시대에 각자의 이익을 둘러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한강 하류역은 지금 국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백제에게는 뿌리깊은

11) 필자는 김유신군이 기본적으로 청산 지역을 거쳐 옥천 경내로 진입한 다음 금산을 거쳐 황산벌로 진군하였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보고 있으나, 옥천에서 대전을 경유하는 경로도 김유신군의 진격 일정을 감안할 때 무시하기는 어렵다. 황산벌 전투와 관련된 신라군의 자세한 진격 경로와 탄현 위치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故土로서 언제든 회복하고자 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고, 신라에게는 소백산맥을 넘어 서해안일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요충지였다. 신라와 손잡은 백제가 고구려에게 내줬던 한성과 한강 하류역을 되찾은 것도 잠시,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역을 신라에게 뺏긴 백제의 상실감과 분노는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강 하류역을 다시 상실한 백제의 분노가 처음 구체적으로 표출된 대상이 바로 관산성이었다. 왜 하필 관산성이었을까?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옥천이 백제의 중심부와 가까워지면서 그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다만 천도 초기 고구려의 거센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웅진기 백제는 신라의 옥천 지역 진출을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538년에 사비[부여]로 천도하게 되면서 옥천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배가되었던 것 같다. 사비 천도 이후 사비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논산 지역과 신라의 수중에 있던 옥천 지역이 너무나도 가까워짐으로써, 백제의 목덜미에 비수를 들이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백제가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 첫 전투지로서 옥천 일대를 선택한 것이 이해될 수 있다. 이제 자신들의 목덜미 가까이 들이대 있는 비수를 먼저 제거하고, 신라 본령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였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산성 전쟁 이후에도 청산과 옥천 일대는 羅濟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옥천 지역의 산성들이 서화천 양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관산성 전쟁 이후 백제와 신라의 경계가 서화천을 중심으로 보다 고착화되어가는 상황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옥추(옥천-추부)회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백제가 관산성전쟁 이후 어느 무렵 옥천 지역을 일시 회복하여 심천 일대까지 진출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조순흠, 2021).

한편 管山城의 당초 지명은 古尸山(城)이었으며, 후대에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管山(城)으로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창이 관산성을 공취하고 쌓았다고 하는 구타모라새는 지리적으로 옥천 읍내와 청산 사이에 있는 심천이나 이원면 지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박종욱(2023)은 심천 지역을 보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한 바 있다.

관산성 전쟁은 가야도 적극 참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에 있는 것처럼 倭도 참전한 국제적 전쟁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관산성 전쟁 후 얼마되지 않아 가야가 멸망한 것을 보면, 이 전쟁이 불러온 후폭풍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관산성 전쟁은 가까이는 가야의 멸망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660년 백제의 패망과 삼국의 존망을 가른 결정적인 것이었으며, 옥천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의 항배를 가른 관산성 전쟁, 비극적인 성왕의 죽음, 삼국판 DMZ라 해도 좋을 만한 濟羅 국경선 등 옥천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역사적 서사를 갖고 있는 곳인 것이다.

V. 맺음말

관산성 전쟁은 대부분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삼국시대의 국제전이었다. 본고에서는 관산성이 있던 옥천 지역이 단순히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격전지로서가 아니라, 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장소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관산성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주지하듯이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에 따른 반발에 있지만, 왜 하필 옥천 지역을 선택하였던 것일까? 이는 응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의 핵심부와 옥천이 가까워진 상황을 빼놓

고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천도 초기 고구려의 위협에 직면하여 있던 백제로서는 옥천 지역으로 진출한 신라를 불가피하게 용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비로 천도한 초기에도 상황은 비슷하였던 것 같다. 다만 사비 천도와 함께 백제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논산 지역과 옥천이 너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백제로서는 목덜미 가까이 비수가 들이대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하류역을 상실하면서 극에 달한 백제의 분노가 표출된 첫 대상이 옥천이었던 것은 목덜미의 비수부터 제거하고 신라의 본령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이해된다.

관산성 전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7월부터 시작하여 12월 무렵에 끝난 것으로 보는 견해(정재운 2019)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전 초기 관산성을 빼앗고 구타모라새를 축조할 정도로 전황이 백제에 유리하였으나, 이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여왕의 군대가 무언가 어려움에 처하자 성왕이 길을 나섰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여왕의 본진이 관산성 일대로 물러나 있던 까닭에 성왕이 옥천과 가까운 지역에서 전사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관산성 전쟁 이후에도 청산과 옥천 일대는 羅濟 사이에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옥천 지역의 산성들이 서화천 양편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관산성 전쟁 이후 백제와 신라의 경계가 서화천을 중심으로 보다 고착화되어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관산성 전쟁은 가야와 倭도 참전한 국제전으로서, 결과적으로 가까이는 가야의 멸망을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660년 백제의 패망과 삼국의 존망을 가른 결정적인 전쟁이었다고 생각된다. 삼국의 항배를 가른 관산성 전쟁, 비극적인 성왕의 죽음, 삼국판 DMZ라 해도 좋을 만한 濟羅 국경선 등 옥천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풍부한 역사적 서사를 갖고 있는 장소인 것이다.

[투고일: 2023.11.15,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참고문헌】

- 金甲童, 1999, 「新羅와 百濟의 管山城戰鬪」, 『白山學報』 52, 白山學會
- 김병남,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 김봉근, 2023,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과제」,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김영심, 2007, 「관산성 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 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金周成, 2009, 「管山城戰鬪의 背景」, 『中原文化論叢』 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 남익희, 2019, 『新羅土器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盧重國,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北方史論叢』 11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 盧重國, 2008, 「신라 진흥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巡狩」, 『鄉土서울』 81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박성현, 2019, 「신라의 입장에서 본 551~554년 삼국 사이의 전쟁」,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53~74쪽
- 박성현, 2021, 「고대 옥천지역의 공간구조와 관산성 전투」, 『2021 옥천산성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옥천향토사연구회
- 박종욱, 2023, 「위덕왕 패전책임론과 관산성 전투의 전개과정」, 『관산성 전투와 옥천 서산성의 조사연구 및 향후과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방용철, 2019, 「고구려·신라의 빅딜, 그리고 관산성 대전」,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신가영, 2019, 「가야, 관산성 전투에 참전하다」,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서영교, 2016, 「餘昌의 백제연합군과 신라의 전쟁」, 『百濟文化』55,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成正鏞, 2002, 「錦山地域 三國時代 土器編年 -百濟와 加耶 勢力 사이의 內陸交通路에 대한 理解를 위하여-」, 『湖南考古學報』16, 湖南考古學會
- 성정용, 2022, 「고대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 중원지역의 토기 문화」, 『중원의 삼국토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梁起錫, 2009, 「管山城戰鬪의 樣相과 影響」, 『中原文化論叢』1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윤상덕, 2014, 「인화문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 윤상덕, 2022, 「삼국시대 중원지역 신라토기의 전개」, 『중원의 삼국토기』,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 윤성호, 2018, 「『삼국유사』 소재 진성 전투와 진흥왕대의 대외관계」, 『삼국유사의 세계』, 세창출판사.
- 魏加耶, 2018, 『5-6世紀 百濟와 新羅의 ‘軍事協力體制’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우, 2021, 「관산성 위치와 축성 배경에 관하여」, 『2021 옥천산성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옥천향토사연구회.
- 張彰恩, 2011,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戰鬪」, 『震檀學報』111, 진단학회.
- 전덕재, 2009, 「관산성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34.
- 정동준, 2019, 「관산성은 백제에게 무엇이었나」,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鄭永鎬, 1975, 「百濟 古利山城考」, 『百濟文化』7·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鄭雲龍, 2007, 「한강 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사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경북문화재단
- 정재윤, 2019, 「삼국통일의 전초전 관산성 전투」,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홍성화, 2019, 「관산성 전투와 왜국의 동향」,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
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조순흠, 2021, 「옥천지역 산성의 현황과 나제 국경선의 변천」, 『2021 옥천
산성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옥천향토사연구회
주보돈, 1998,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최병화, 2004, 「금산지역 백제산성에 대한 고찰」, 『百濟文化』30, 공주대학
교 백제문화연구소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沃川 己城山城-(1차) 긴급발굴조사 보고서』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a, 『沃川 金龜里 新羅 古墳群』
中原文化財研究院, 2011b, 『沃川 加豐里Ⅱ遺蹟』
車勇杰·梁起錫·趙順欽·金珠美 2003, 『新羅·百濟激戰地』, 沃川郡·忠
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崔秉鉉·金根完·林樹珍, 1992, 『錦山場垈里古墳群』, 韓南大學校博物館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2, 『錦山 水塘里遺蹟』
충북문화재연구원, 2020,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부지 내 유적』
충북문화재연구원, 2023, 『2023년도 사적예비문화재 조사지원사업-옥천
서산성 정밀지표조사 용역』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15, 『報恩 上可里遺蹟』
한국선사문화연구원, 2022, 『옥천 이성산성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忠淸南道歷史文化院, 2007, 『錦山 水塘里遺蹟』, 遺蹟調查報告 31冊

【Attribute】

Gwansanseong[Gosisanseong] Fortress and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Okche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Korea

Seong, Jeongy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Gwansanseong Fortress War is the most widely known international war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As is well known, the basic reason for the outbreak of this war is the backlash caused by Baekje's loss of the Han River basin.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Okcheon was the first target of Baekje's anger, which reached its peak after losing the lower reaches of the Han River due to Silla's betrayal. It is thought that Baekje wanted to attack Okcheon, which was close to the Nonsan area, which was almost like a front yard, and first eliminate the dagger that seemed to be sticking at their necks.

The Gwansanseong Fortress War was not temporary, it appears to have started in July and ended around December.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the situation was favorable to Baekje, to the extent that Gwansanseong Fortress was taken and Guttamorasae was built. It seems that the Guttamorasae built by Yeochang can be assigned to the Shimcheon-myeon or Iwon-myeon area. Afterwards, the war reached a stalemate and King Seong, who had

rushed out to encourage Yeochang's army, which was in trouble, was killed on the road, and this war had a huge impact on the future of the three kingdoms. It seems that King Seong was killed in an area close to Okcheon because Yeochang's main camp retreated to the area around Gwansanseong Fortress.

Looking at the fact that Gaya was destroyed not long after the Gwansanseong Fortress War, we can guess the aftermath of this war. The Gwansanseong Fortress War not only brought about the destruction of Gaya nearby, but was also a decisive war that decided the fall of Baekje and the survival of the three kingdoms in 660, and Okcheon was an area in the center of that whirlpool. The Okcheon area is a place with a richer historical narrative than any other place, including the Gwansanseong Fortress War that decided the fate of the Three Kingdoms, the tragic death of King Seong, and the border of Jera(Baekje+Shilla), which could be called the Three Kingdoms' version of the DMZ.

Keywords : Okcheon, Baekje, Silla, Gaya, Wae, Gwansanseong Fortress War, International War, Guttamorasae, Scent of the Three Kingdoms